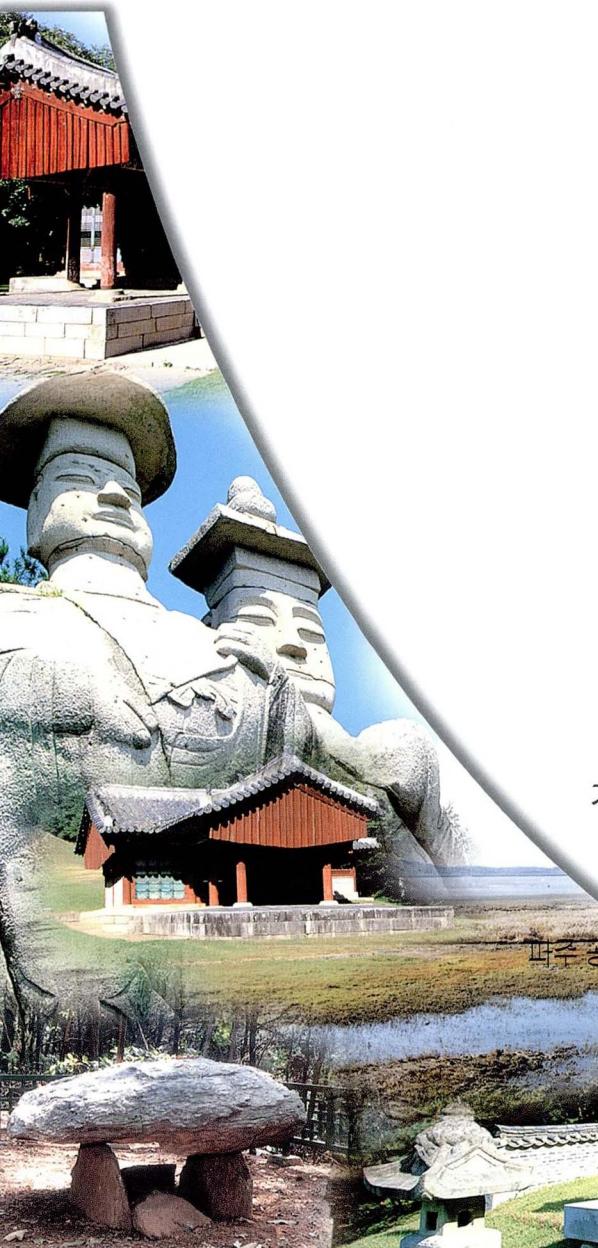


(國家 指定文化財)

국가 지정문화재



- 용미리 석불입상
- 덕은리 주거지 및 지석묘군
- 장릉
- 궁·순·영릉
- 운관장군묘
- 오두산성
- 소령원
- 유길원
- 가월리·주월리 구석기 유적
- 한강하류 재두루미 도래지
- 적성 물푸레나무
- 파주 광효공 박중손 묘역내 장명동

용미리 석불입상

(龍尾里 石佛立像)



Information

- 지정번호 : 보물 제93호
- 지정년월일 : 1963년 1월 21일
- 시 대 : 고려중기
- 소재지 : 광탄면 용미리 산 8
- 소유자 : 국가
- 규모 : 전체높이 17.4m
- 재료 : 화강암

용

미리석불입상(龍尾里石佛立像)은 광탄면 용미리 장지산(長芝山) 자락에 위치한 용암사(龍岩寺) 경내 좌측상단부에 자리하고 있다.

고려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이 석불입상은 천연 바위벽을 이용해 그 위에 목, 머리, 갓 등을 따로 만들어 얹어놓은 2구(軀)의 거대한 불상으로 토속적인 맛이 느껴지는 작품이다.

거대한 자연석을 그대로 이용했기 때문에 위압감(威壓感)은 있으나 신체 비율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서투른 조각수법을 보여주고 있다.

왼쪽의 둥근갓을 쓴 불상(원립불·圓笠佛)은 사각형의 얼굴에 자연스러운 미소를 띠고 있어 안동마애석불(安東磨崖石佛)과 비슷하지만 이에 비해 정신적인 불성(佛性)은 적어보이며 세속적이고 민속적인 얼굴로

변화된 것이다. 목은 원통형이며 당당한 가슴을 드러내고 있지만 바위의 제약으로 목과 가슴이 혼연일체 되지 못하고 있다.

몸체는 법의(法衣)로 감싸고 있으며 양쪽으로 내려진 옷자락은 세로선 길이로 무늬를 나타냈으며 가운데를 V자형 선으로 조각하였다.

법의 윗부분은 상당히 유연하

여 가슴의 띠매듭이 이 불상의 장식적인 효과를 주고 있으나 아래부분은 옷자락을 나타내는 선만 조각했을 뿐이어서 바위의 느낌이 그대로 남아있다.



방립불(方笠佛)

양손은 가슴에 들어올려 연꽃을 잡고 있는데 이는 관촉사 미륵보살상, 대조사 미륵보살상처럼 이 불상 역시 미륵보살상이 아닌가 추측케 해준다.

오른쪽 사각형의 것을 쓴 불상(方笠佛)은 합장한 손모양만 다를 뿐 신체 다른 부위의 조각수법은 왼쪽 불상과 비슷하다.

구전에 의하면 원립불은 남상(男像), 방립불은 여상(女像)으로 전하는데 고려시대 선종(宣宗)이 자식이 없어 원신궁주(元信宮主)까지 맞이했으나 여전히 왕자를 낳지 못했다.

이를 못내 걱정하던 궁주가 어느날 밤 꿈을 꾸었는데 두 도승이 나타나 “우리는 장지산(長芝山) 남쪽기슭에 있는 바위틈에 사는 사람들인데 매우 배가 고프니 먹을 것을 달라”하고 사라져 버렸다. 꿈에서 깨 궁주가 하도 이상하여 왕께 고하자 왕은 곧 사람을 장지산에 보냈는데 장지산에 다녀온 사람이 “장지산 아래에 큰 바위 두 개가 나란히 서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왕은 즉시 이 바위에 두



원립불(圓笠佛)

도승을 새기게 하고 절을 지어 불공을 드렸다.

그러자 그해에 왕자 한산후(漢山候)가 탄생하였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전설은 도처에 남아 있는 기자전설(祈子傳說)에 불과하지만 구체적인 왕명이 나와 있어 불상의 조성연대를 짐작해 준다.

또 불상의 옆쪽 벽면에는 200여자의 명문이 희미하게 조각돼 있는데 마멸이 심해 판독은 어려우나 이러한 구전 내용일 것으로 추측된다. 지금도 이곳에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공을 드리기 위해 많이 찾고 있다.



● 찾아가는 길 ●

불광동터미널에서 322(좌석), 32(일반) 버스를 타고 용미리석불입상 입구에서 하차 후 도보로 2~3분 소요됨



덕은리 주거지 및 지석묘군

(德隱里 住居址 穂 支石墓群)



Information

- 지정번호 : 사적 제148호
- 지정년월일 : 1966년 3월 22일
- 시대 : 청동기시대
- 소재지 : 월롱면 덕은리 산46-1
- 소유자 : 국가

으로 구릉 최고점에 이르기까지 능선마다 1~2개씩의 소형 지석묘들이 흩어져 있으며 가장 꼭대기에서 서쪽으로 30m 되는 지점에 가장 큰 규모의 지석묘가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남쪽사면에 걸쳐 약 10여기의 지석묘들이 분포하고 있어 이 유적의 중심지역을 이루고 있다.

약 20여기가 넘는 이곳의 지석묘들은 발견당시 대부분이 무너져 땅에 묻혀 있던 것을 학

덕은리 선사유적은 임진강의 지류인 문산천의 서안(西岸)에 이어진 높이 82m의 구릉위에 분포하고 있는 소규모 탁자형태(북방식·北方式)의 지석묘이다. 구릉의 하단부분에서 서북쪽

술조사 실시이후 그 중 몇 기를 제 모습으로 복원하여 보존하게 되었다.

수도권 인근에서 발견된 지석묘군으로는 강화도 하점면 부근리·삼거리 유적 다음가는 큰 규모이다. 지석묘의 집단유적은 남쪽 지역으로 갈수록 주로 바둑판 형태(南方式)의 지석묘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반해 이곳은 모두가 북방식의 형태를 띠고 있다.

1963~1965년에 걸쳐 국립박물관 조사단이 이곳 지석묘를 발굴하다가 청동기 시대의 대형 움집터(堅穴式住居址)를 발견했는데 그 규모가 동서길이 15.7m, 남북너비 3.7m, 깊이 40~90cm의 길쭉한 평면을 이루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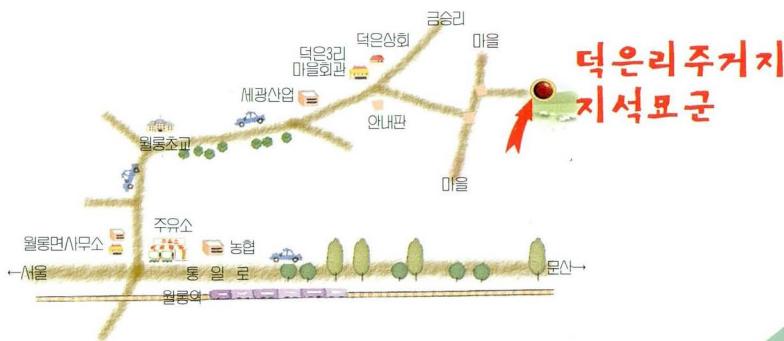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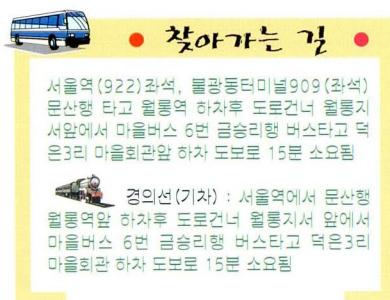
벽면에는 붉게 탄 흔적이 남아 있으며 4면의 벽선을 따라 바닥에 기둥을 세웠던 흔적과 중앙에서 동편으로 치우친 곳에 2개의 화덕자리가 발견되었다.

당시 이처럼 크고 완벽에 가까운 수혈식주거지가 발견된 것은



우리나라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움집내부에서는 무문토기의 한 형식으로 분류되는 구멍무늬토기(孔列土器) 파편과 간돌화살촉(磨製石鏃), 간돌검(磨製石劍) 등이 출토되었다.

이들과 함께 출토된 숫조각(목탄편·木炭片)에 대한 방사성 탄소연대측정을 실시한 결과 이주거지의 연대는 기원전 7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해당하는 유적으로 밝혀졌다.



장릉

(長陵)



Information

- 지정번호 : 사적 제203호
- 지정년월일 : 1970년 5월 26일
- 시대 : 영조7년(1731)
- 소재지 : 탄현면 갈현리 산25-1
- 소유자 : 국가

장릉(長陵)은 조선시대 16대 임금인 인조(仁祖)와 그 비(妃) 인열왕후 한씨(仁烈王后 韓氏)의 합장 능(陵)이다.

인조는 선조(宣祖)의 다섯째 아들인 정원군(定遠君·추존元宗)의 맏아들로 능양군(綾陽君)에 봉해졌는데 1623년(광해군 15) 인조반정을 통해 왕위에 올

랐다.

인조는 27년동안의 재위기간 중 이괄의 난(李适의 亂), 정묘호란(丁卯胡亂), 병자호란(丙子胡亂)을 겪은 후 삼전도(三田渡)에서 청나라 태종에게 항복하고 소현(昭顯), 봉림(鳳林) 두 아들을 인질로 보내는 치욕을 당하였다.

또한 정치적으로 당파간의 싸움이 격화되어 사회가 혼란스러워짐에 따라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1649년(인조 27)에 승하하였다.

인조의 비 인열왕후 한씨는 한준겸(韓浚謙)의 딸로 1610년



능양군과 혼인하였고 인조 즉위와 더불어 왕비가 되었다.

효종(孝宗)과 소현세자(昭顯世子), 인평대군(麟坪大君), 용성대군(龍城大君)의 4형제를 낳았으며 42세의 나이로 승하하였다.

장릉은 당초 문산읍 운천리 대덕골에 있었으나 1731년(영조 7) 석물틈에 뱀들이 집을 짓고 극성을 부려 지금의 위치로 옮겨 합장하였다.

장릉의 석물구조를 살펴보면 봉분아래로 12면의 병풍석을 세우고 그 바깥으로 돌 난간을 둘렀으며 봉분앞에 상석(床石) 2좌(座)를 배치하여 2위(位)임을 나타냈다.

장릉의 석물들은 합장으로 인해 척수(尺數)가 맞지 않게된 병풍석과 난간석, 상석만 이전 당시 새로 설치하였고 다른 석물은 구 장릉의 석물을 그대로 옮겨왔다.

봉분뒤로 담장을 둘러 아늑한 분위기를 주었으며 상석 중앙 정면에 장명등과 양쪽에 망주석 2기를 배치하였다.

또, 봉분정면 양쪽에는 문인석과 무인석이 각각 1쌍씩 세워

져 있고
봉분 주
위로 석

마(石馬), 석양(石羊), 석호(石虎)를 각각 2필씩 배치해 능을 호위케 하고 있다.

장명등, 병풍석 및 석수(石獸) 등은 태조의 건원릉(建元陵) 석물양식을 따른 것이나 병풍석에 새겨진 문양은 구 장릉의 전통적인 운문(雲文)과 십이지신상이 아닌 화문(花文-목단과 연꽃)으로 바꾸고 8각형의 장명등에도 목련과 연화문을 조각해 넣은 것으로 보아 18세기 능석물 문양이 갖는 시대적 특징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능 아래에는 정자각(丁字閣)과 비각(碑閣), 수복방(守僕房)이 위치하고 있으며 재실은 홍살문 동남측 소로변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이곳은 일반인에게 비공개 관리되고 있다.



● 찾아가는 길 ●

신촌면역 77-3, 567(좌석) 버스를 타고 금촌·단현버스터미널 하차후 3번 5번 버스를 타고 갈현리마을 캠프매니아 레스토랑 이정표에서 하차후 도보 20분 소요됨



장릉출장소 : (031) 945-92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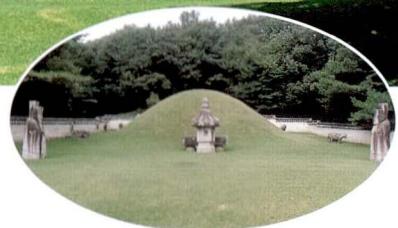


공릉 · 순릉 · 영릉

공릉 (恭陵)



- 시대 : 세조 7년(1461)
- 소재지 : 조리면 봉일천리 2-2



조선 제8대 예종(睿宗)의 원비(元妃) 장순왕후(章順王后 · 추존) 한씨(韓氏)의 능이다.

장순왕후는 상당부원군(上黨府院君) 한명회(韓明澮)의 딸로 1460년(세조6) 16세로 세자빈에 책봉되어 인성대군(仁城大君)을 낳고 이듬해 17세의 나이로 승하하였으며 1472년(성종 3)에 왕후로 추존되었다.

공릉은 당초 왕후릉이 아닌

세자빈묘로 조성된 관계로 초석과 난간이 생략되고 봉분앞에 상석(床石)과 8각의 장명등을 세우고 좌우 양쪽에 문인석 2기를 세웠다. 또, 봉분주위로 석마(石馬), 석양(石羊), 석호(石虎) 각각 2필씩을 두어 능주변을 호위하고 있다.

공릉아래 정자각(丁字閣), 비각(碑閣), 홍살문이 위치하고 있다.

Information

- 지정번호 : 사적 제205호
- 지정년월일 : 1970년 5월 26일
- 시대 : 세조7년(1461)~영조 27년(1751)
- 소재지 : 조리면 봉일천리 산4-1, 산15-1
- 소유자 : 국가

순릉 (順陵)

조선 제9대 성종(成宗)의 원비(元妃)인 공혜왕후(恭惠王后) 한씨(韓氏)의 능이다.

공혜왕후는 상당부원군 한명희의 딸로 공릉의 장순왕후와는 자매지간이다.

1467년(세조13) 11세에 가례를 올렸고 성종즉위와 더불어 왕비가 되었으나 성종즉위 5년(1474년) 4월 자식없이 춘추 18세로 승하하였다.

순릉은 조선전기의 능 형태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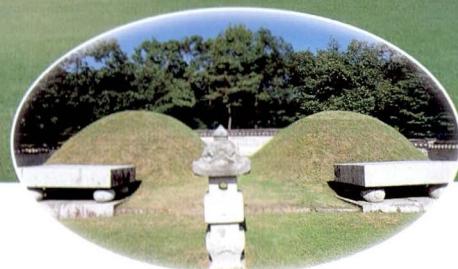
따르고 있는데 소담한 돌기둥 난간(欄干石柱)을 둘렀으며 봉분앞에 상석과 8각의 장명등을 배치하고 양쪽으로 문인석과 망주석 2기를 두었다. 또 석양(石羊), 석호(石虎) 각각 2필씩을 두어 능을 호위케 하고 있다.

순릉아래에 정자각(丁字閣), 비각(碑閣), 홍살문이 위치하고 있다.

- 시대 : 성종 5년(1474)
- 소재지 : 조리면 봉일천리 1-2



영릉 (永陵)



- 시대 : 영조 4년(1728) ~ 영조 27년(1751)
- 소재지 : 조리면 봉일천리 3-6

조선 제21대 영조(英祖)의 말아들인 효장세자(孝章世子) 진종(眞宗·추존)과 그 비(妃) 효순왕후(孝純王后) 조씨(趙氏)의 능이다.

진종은 1719년(숙종 45)에 태어나 1724년 영조 즉위와 더불

어 왕세자로 책봉되었으나 1728년 춘추 10세의 나이로 돌아가 시호를 효장이라 하였다.

1762년 영조는 둘째아들인 사도세자(思悼世子)를 폐위한 뒤 사도세자의 아들인 왕세손(훗날 정조)을 효장의 아들로 입적

시켰다.

효장은 정조 즉위후 영조의 유언에 따라 진종으로 추존되었고 능호도 올려 영릉(永陵)이라 하였다.

효순왕후 조씨는 풍릉부원군(豐陵府院君) 조문명(趙文命)의 딸로 1727년 13세에 세자빈에 책봉되었으나 다음해에 세자의 죽음으로 홀로 되었다가 1751년 춘추 37세로 돌아가 효장세자와 함께 왕후로 추존되었다.

영릉의 능형태는 왕릉과 왕비

릉을 쌍릉으로 하여 2기의 상석을 앞에 놓았으며 그 중간에 사각옥형의 장명등을 배치하고 문인석 2기와 석양(石羊)·석호(石虎)를 각각 2필씩 배치해 능주위를 호위케 하였다.

영릉아래에 정자각(丁字閣)이 있으나 이 정자각은 1960년대 말 노후되었던 것을 1996년에 복원하였으며, 비각(碑閣)과 홍살문이 위치하고 있다.




● 찾아가는 길 ●

서울역앞 912(좌석), 158-2(일반), 불광동 909(좌석)
금춘행을 타고 공·순·영릉입구 경류장 하차 도보로 10분
소요됨

 문화재청 파주지구 관리소 : (031) 941-4208

• 입장료 :

	개 인	단 체
18-24	200원	30인 이상 100원
65세 미만	400원	30인 이상 300원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무료	

윤관장군묘

(尹瓘將軍墓)



Information

- 지정번호 : 사적 제323호
- 지정년월일 : 1988년 2월 27일
- 시대 : 고려중기 예종6년(1111)
- 소재지 : 광탄면 분수리 산4-1
- 소유자 : 파평윤씨대종회

봉분아래는 장대석 모양의 호석(護石)을 두르고 봉분뒤로 담장을 둘러 아득한 느낌을 주고 있다.

봉분정면에 상석(末石)이 놓여있으며 왼쪽에 묘비가 서있다. 한계단 아래에 양쪽으로 망주석과 상석 전면에 사각의 장명등이 세워져 있다.

장명등을 중심으로 각각 양편

고려 예종(睿宗)때 여진정벌의 공을 세운 명장 윤관(尹瓘)의 묘로 묘역전체 규모가 상당히 크고 웅장하며 봉분과 석물이 단을 이루며 자리잡고 있다.

에 동자석, 문인석, 무인석, 석양, 석마등이 일렬로 배치되어 있다.

묘역 아래에는 윤관장군의 영정이 봉안되어 있는 여충사(麗忠祠)가 자리하고 있는데 매년 음력 3월 10일 제사를 지내고 있다.

윤관(?~1111)은 태조를 도운 삼한공신(三韓功臣) 신달(莘達)의 고손이며 검교소부소감(檢校小府少監)을 지낸 집형(執衡)의 아들이다. 본관은 파평(坡平)이며 자는 동현(同玄), 시호는 문숙(文肅)이다.

고려 문종(文宗)때 문과에 급제하였고 숙종 9년(1104)에 동북면행영병마도통(東北面行營兵馬都統)이 되어 국경을 침범하는 여진정벌에 나섰으나 여진의 강한 기병에 패하고 임기응변으로 강화를 맷고 철수하였다.

그 후 특수부대인 별무반(別武班)을 창



여충사(麗忠祠)

설 대원수(大元帥)가 되어 예종 2년(1107) 부원수 오연총(吳延寵)과 함께 17만 대군을 이끌고 여진을 정벌하고 9성을 쌓아 국방을 수비케 하였다.

윤관은 문무(文武)를 겸한 공신으로 예종6년(1111)에 돌아가자 1130년(인종 8) 예종의 묘정(廟廷)에 배향(配享) 되었다.



● 찾아가는 길 ●

광동터미널에서 322(좌석), 32(일반) 버스를 타고 윤관장군묘 입구에서 하차



문의 : (031) 947-3330

오두산성

(烏頭山城)



Information

- 지정번호 : 사적 제351호
- 지정년월일 : 1991년 8월 24일
- 시대 : 삼국시대
- 소재지 : 탄현면 성동리 산86
- 소유자 : 국가
- 규모 : 총길이 621m 추정,
약 10m잔존

오두산성(烏頭山城)은 탄현면 성동리 자유로(自由路)가 지나는 오두산의 정상부분과 산사면에 띠를 두르듯이(테뫼식) 축성된 석성(石城)이다.

오두산은 한강과 임진강 하류가 맞닿은 곳에 표고 119m로 솟아있으며 주변에 높은 산이 없어 산 정상에 서면 서쪽으로는 북한 지역이, 남쪽으로는 김포평야가 한눈에 들어온다.

또한 서쪽으로는 한강이 북으로는 임진강이 흐르고 있어 두 강이 만나서 서해로 흘러드는 길목에 위치해 군사적으로 매

우 중요한 지리적 요건을 갖추고 있다.

산성은 현재 정상에 통일전망대(統一展望臺)가 들어서 있어 그 규모와 원형이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되었고 한강과 인접해 있는 가파른 북쪽 절벽위에 약 10여m의 성벽이 잔존하고 있다.

산 정상부근에는 여기저기에 성벽을 이루었던 것으로 보이는 석재들이 흩어져 있으며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를 통하여 계속 수축된 것으로 보인다.

이 성은 한국전쟁 이후 거의 유실 파손되었으나 1990년 9월부터 1991년 11월 사이의 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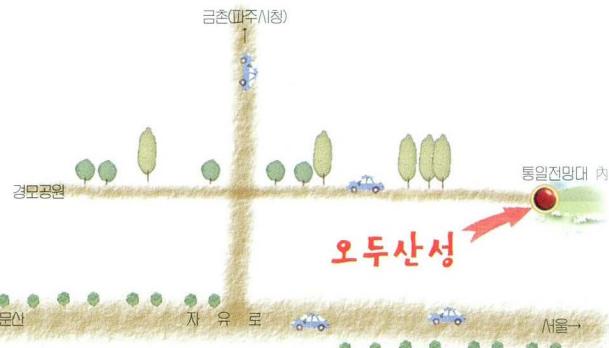
조사에서 규모가 밝혀지고 삼국시대에서 조선시대에 이르기 까지의 토기(土器), 백자(白磁), 기와(器瓦), 철족(鐵鍤) 등의 유물이 다수 발견되었다.

최근 오두산성은 문헌적으로, 고고학적으로 백제의 관미성(關彌城)일 가능성이 제기되어 주목받고 있는데 백제의 북방 전초기지였던 관미성은 병신전쟁(丙申戰爭·396)에서 고구려 광개토왕의 수군이 백제의 아신왕(阿辛王)을 치고 수도 위례성(慰禮城)을 함락시키기까지 광개토왕의 남하정책 경로를 밝혀주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 찾아가는 길 ●

신촌전철역 77-3, 567(좌석)버스를 타고 금촌·탄현 버스터미널 하차후 3번 버스를 갈아타고 오두산 통일 전망대 주차장 하차후 통일전망대 셔틀버스이용 전망대 주차장 하차 주차장 아래 위치함



소령원

(昭寧園)



Information

- 지정번호 : 사적 제358호
- 지정년월일 : 1991년 10월 25일
- 시대 : 조선 중기 숙종44년(1718)
- 소재지 : 광탄면 영장리 267
- 소유자 : 국가

신도비각

소령원(昭寧園)은 조선 21대 영조(英祖)의 어머니 숙빈최씨(淑嬪崔氏)의 원소(園所)이다. 숙빈최씨는 최효원(崔孝元)의 딸로 1670년(현종11) 11월 6일 태어나 7세에 입궁하여 숙종의 후궁이 되었다.

1694년(숙종 20) 9월 13일 창덕궁에서 영조를 낳았으며 1718년(숙종 44) 3월 19일 춘추 49세로 돌아가 그해 5월 12일 당시 양주땅이었던 지금의 광탄면 영장리에 장사지냈다.

영조는 1725년(영조 1) 어머니를 위해 육상묘(毓祥廟)를 건립해(현재 서울 종로구 궁정동

1-1 칠궁(七宮) 어머니의 신판을 봉안하고 그 옆에 여막을 만들게 하였다.

처음에는 소령묘로 불렸으나 1753년 육상묘를 육상궁으로 개칭하면서 원으로 승격시켰다.

원역(園域)은 산기슭 중단부에 동향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봉분 뒷편에 담장을 설치하고 봉분의 양쪽으로 석호(石虎)·석양(石羊)을 각각 2필씩 배치하였다.

봉분 정면에는 비석, 상석, 향로석, 장명등이 일렬로 놓여 있고 그 좌우로 망주석, 문인석, 석마(石馬)가 대칭으로 배열되어 있다.

석물들이 전체적으로 간략한 형태를 띠고 있고 사각의 장명 등 기둥과 석마(石馬)의 다리사이가 막혀있는 점등으로 보아 조선후기 석물 형태를 살펴 볼 수 있다.



수복방(守僕房)

원소(園所) 아래 동북방으로는 비각 2동이 있으며 동쪽방향으로 중앙에 정자각(丁字閣)과 원쪽에 수복방(守僕房)이 배치되어 있다. 수복방은 조선시대 원소중 소령원에만 유일하게 남아 있다. 진입로 초입에는 숙빈 쇄씨(淑嬪崔氏)의 신도비가 보호각으로 보호되고 있다.

현재 이곳은 일반인에게 비공개 관리되고 있다.



● 찾아가는 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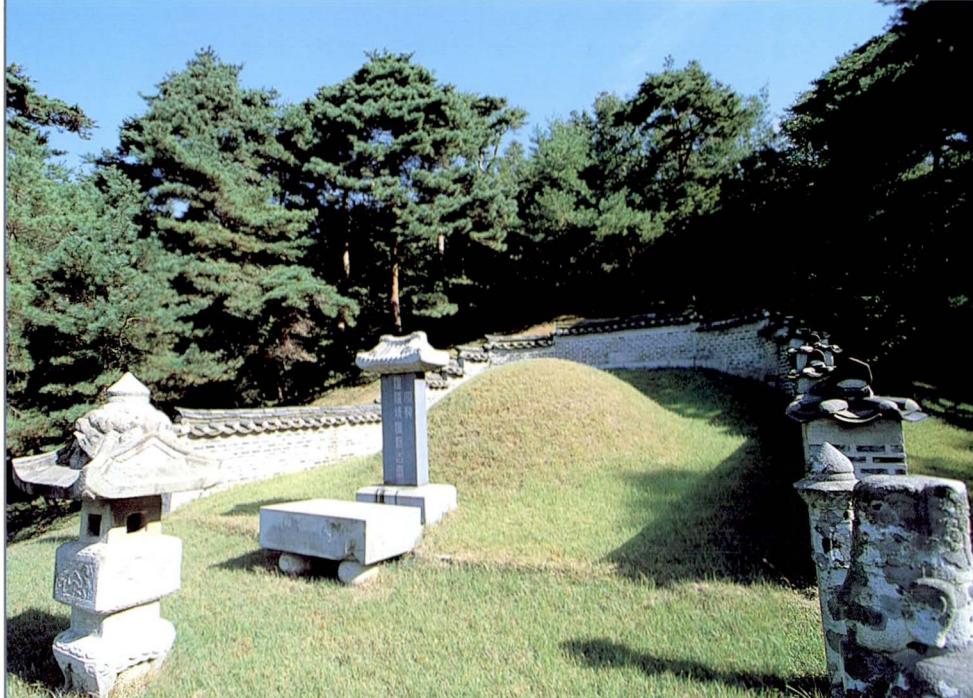
불광동터미널에서 광탄행 33번 일반버스를 타고 영장리파출소·슈퍼앞 하차 후 도보로 20분 소요됨



소령원문율장소 : (031) 948-1145

유길원

(綏吉園)



Information

- 지정번호 : 사적 제359호
- 지정년월일 : 1991년 10월 25일
- 시대 : 조선 중기 경종 1년(1721)
- 소재지 : 광탄면 영장리 266
- 소유자 : 국가

 **유길원**(綏吉園)은 조선 21대 영조(英祖)의 후궁인 정빈이씨(靖嬪李氏)의 원소(園所)이다.

정빈이씨는 이준철(李浚哲)의 딸로 1694년(숙종20)에 태어나 1701년 영조의 후궁이 되었고 1719년 2월 15일 영조의 장자인 효장세자(孝章世子) 진종(眞宗-추존)을 낳았다.

병환으로 1721년(경종1) 11월 16일 춘추 28세로 돌아가 그해 12월 14일 당시 양주땅이던 지금의 광탄면 영장리에 장사지냈다.

원역(園域)은 산기슭 중단부에 서남향으로 조성되었으며

봉분 뒷편으로 담장을 설치했다.

봉분 정면으로 비석, 상석, 장명등이 일렬로 배치되었고 양쪽으로 망주석, 문인석이 세워져 있다.

동남측 하단부에 남향으로 정자각(丁字閣)을 세웠으나 현재는 기단부만 남아 있으며 서남측으로 수복방(守僕房)이 있었으나 역시 주춧돌만 남아 있는 상태다.

현재 이곳은 일반인에게 비공개 관리되고 있다.



● 찾아가는 길 ●

■ 광동터미널에서 광탄행 33번 일반버스를 타고 영장리파출소·슈퍼앞 하차 후 도보로 20분 소요됨



유길원출장소: (031) 948-1145

가월리·주월리 구석기 유적지

(佳月里·舟月里 舊石器 遺跡地)



Information

- 지정번호 : 사적 제389호
- 지정년월일 : 1994년 12월 21일
- 소재지 : 적성면 가월리 산95-6번지,
주월리 309, 310-8번지 일대
- 소유자 : 국가



철제돌찌귀



적색연질타날문판경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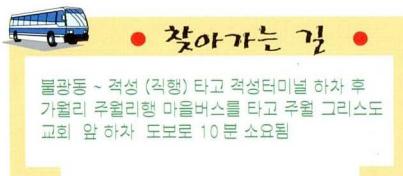
7-1 월리·주월리 구석기 유적지(佳月里·舟月里 舊石器遺蹟地)는 1988년 최초 발견되어 1993년 일부지역에 대한 시굴조사 실시결과 기원전 4~5만년경 우리나라 구석기 시대에 형성된 선사문화유적지로 밝혀졌다.

이곳에서 수습된 유물은 주먹도끼, 가로날도끼, 찍개, 대형긁개, 홈날석기, 석핵등 대형석기가 주류를 이루고 소형석기들도 다수 발견되었다.

현재 이지역은 경지정리로 인해 대부분 숲을 이루고 일부는 밭으로 경작되고 있다.

이 유적은 수습된 유물의 연대 추정으로 보아 4~5만년전을 전후한 시기일 가능성이 크며 연천 전곡리 유적지와 함께 임진~한탄강 유역의 중요한 구석기 유적의 하나이다.

가월리·주월리 구석기 유적지



숯돌

한강하류 재두루미 도래지



Information

- 지정번호 : 천연기념물 제250호
- 지정년월일 : 1975년 2월 21일
- 소재지 : 교하면 송촌리외 7개리
- 소유자 : 국가

나서 이루어진 삼각주 일부의
광활한 갈대밭과 초지로 이루
어져 있다.

자유로가 지나는 교하면
산남리, 문발리, 신촌리, 송촌리
에 걸쳐 위치한 재두루미도래
지는 임진강과 한강하구가 만

이곳에 재두루미가 도래한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1973년 주한미군 벤킹
(Ben King)이 미국의 두루미학
자 월킨쇼(Wal Kin Shaw)에게

“1961년 11월 약 2,300여 마리의 재두루미가 한강하구 개펄에 도래한다”고 보고함으로써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로부터 1980년 초까지는 해마다 10월 하순경부터 이듬해 3월 중순경까지 재두루미 약 2천 여 마리가 규칙적으로 도래하여 일부는 이곳을 거쳐가고 또 다른 무리는 이곳에서 월동하

기도 하였다.

최근 식물의 천이과정으로 재두루미의 먹이가 부족하지만 이 지역 일대에는 겨울철새인 독수리, 큰 기러기, 느시, 개리, 도요새, 물새떼 등 아직까지 적지 않게 모여들고 있다.



적성(積城) 물푸레나무



Information

- 지정번호 : 천연기념물 제286호
- 지정년월일 : 1982년 11월 4일
- 소재지 : 적성면 무건리 465
- 소유자 : 국가
- 나무둘레 : 14M
- 동서수관폭 : 11M
- 남북수관폭 : 9M



물

풀레나무는 물풀레나무에 속하는 낙엽 활엽 교목으로 전국 산야에 자생하며 해발 100~1,600m 지점에 주로 분포한다.

보통 크게 자랐을 때의 높이가 3m, 직경 50cm에 달하는데 이곳 적성면의 물풀레나무는 같은 종류의 나무과로는 보기드문 노거목(老巨木)으로 높이가 무려 13.5m에 달하고 굵은 줄기 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물풀레나무는 성장할 때 밝은 빛을 좋아하고 추위에도 강하며 비옥하고 습기가 있는 곳에서 생장성이 더욱 좋다.

목재는 물리적 성질이 좋아 악기나 운동 용구의 재료로 쓰이며 나무껍질은 약용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특히, 농경민족인 우리에게 물풀레나무 가지는 타작 할 때 사용되는 도리깨의 재료로 많이 쓰여 친숙함을 가지고 있다.

'물풀레'라는 명칭은 가지를 꺾어 물속에 넣으면 물을 푸르게 만든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곳에 있는 물풀레나무의 수령은 약 150년 정도로 예상되며 옛날부터 인근의 농민들이 들일을 하다가 점심식사 후에 이 나무의 그늘에 누워 낮잠을 즐겼다고 한다.

1982년 11월 3일 천연기념물 제286호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으며 안내표지판과 보호 철책이 둘러져 있다.

● 찾아가는 길 ●

불광동에서 적성행(직행) 타고 법원리 골시 지나서
법골(사각장) 앞 하자 도보 20분 소요

참고 : 군부대 출련시 출입불가



파주 공효공 박중손 묘역내 장명등

(坡州 恭孝公 朴仲孫 墓域內 長明燈)



Information

- 지정번호 : 보물 제1323호
- 소재지 : 탄현면 오금리 산19
- 소유자 : 밀양박씨 규정공파 대종회

딸인 정경부인(貞敬夫人) 남평현
(南平縣) 문씨의 묘이다.

묘소 전면은 3단의 지형으로 조성하고 각 단은 1단의 장대석을 두었는데, 각 묘앞에는 상단의 장대석축에 걸쳐 장방형의 간단한 상석(床石)을 두었고 그 앞에 각각 장명등(長明燈)을 두었다.

묘역 좌우에는 각각 문인석과 무인석이 있으며, 향 우측 아래쪽에는 신도비 (조선 세조 12년 (1466)7월에 건립)가 있다.

공효공(恭孝公) 박중손(朴仲孫, 1412~1466)은 세종~세조년간의 문신(文臣)으로 여러 요직을 지냈으며, 특히 천문(天文)을 관찰함에 뛰어난 재능으로 많은 업적을 남긴 인물이며, 박중손과 같은 언덕에 조성된 봉분은 공조정랑(工曹正郎) 문승조(文承祚)의

공효공묘의 장명등은 신도비 건립년대와 같은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며, 조선초기 장명등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매의 부재중 하부재는 대좌(臺座)와 화사(火舍)로 이루어져 있고 상부재는 옥개석으로 되었는데 등부(燈趺)인 대좌는 하대·중대·상대 등 세부분으로 구분되어 구성되었고, 그 위에 화사부분이 조식되었으며 옥개석은 옥개(屋蓋)와 연주대(蓮珠帶) 및 연봉형(蓮峯形)의 보주(寶珠)로 구성되었다.

정경부인묘 앞에 장명등은 정경부인이 공효공보다 먼저 사망하였으므로 약간의 시기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노출되어 있는 두 장명등의 높이는 서로 비슷하나 공효공묘 앞 장명등이 둔중해 보이는데 비해 정경부인묘 앞 장명등은 세장하며 화창은 서로 형태를 달리하고 있다.

공효공과 정경부인의 묘앞에 각각 설치된 장명등(長明燈)은 조선초기의 전형적인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완전

하게 보존되어 있으며 또한 묘제(墓制) 및 기타 석물(石物)들도 조선초기의 우수한 조성수법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공효공묘 앞에 있는 장명등은 전·후면은 방형(方形)으로 화창(火窓)을 내었으나, 동쪽에는 원형(圓形), 서쪽에는 반월형(半月形)의 화창을 두어 일(日)·월(月)을 상징한 독특한 형태이며, 정경부인묘 앞의 장명등은 이보다 세장(細長)하면서 화창을 모두 방형으로 만들어 서로 비교되고 있다.

이러한 특수한 수법과 형태의 장명등은 매우 희귀한 예로서, 역사적, 학술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인정되어 2001. 4. 14 관보에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 지정 예고되었다.



● 찾아가는 길 ●

- 금촌 탄현버스터미널에서 1번 문산행 버스를 타고 오금2리에서 하차 도보로 약 20분가량 소요.
- 자가용 이용시 서울에서 자유로 진입하여 문산, 임진각 방향으로 진행하다 탄현면 통일동산 성동IC를 지나 약 2분가량 진행하다 오금리 입구로 진입후 5분가량 소요.

